

# '옛것의 가치' 재확인

## 민속학자 故 예용해선생 추모전집 발간

“송풍사 벽면 해묵은 불화를 바라 보며 아찔지던 대자대비 인제나 고졸한 웃음이 가시지 않은 아름다운 부처님들의 모습을 마음의 빗으로 삼았다.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그리는 정에 모자랐다. 그 모습을 옮겨보고자 붓을 들었다. 백지에다 그리고 또 그렸다”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찾는데 평생을 바친 민속학자 故 예용해선생(1929~1995)은 60년대 초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인간문화재' 시리즈 기사에서 금어(金魚·불화를 그리는 승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유형문화재에 한정된 우리나라 전통문화정책을 인간에 의해 전수되는 전통기능과 예능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했던 예용해선생은 지금은 보편화된 '인간문화재(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정착시킨 인물로 유명하다.

지난 95년 4월 자필로 타계한 선생의 2주기를 맞아 최근 나온 <예용해선생(대원사 刊)>은 독실한 불자이자 탁월한 식견의 민속학자였던 예용해선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글들을 모은 전집으로 문화유산의 해를 한층

뜻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조유전 국립민속박물관장, 경기도 가평 지선암의 흥선스님 등 13인으로 구성된 '예용해 전집 간행위원회'가 발족, 선생이 생전에 남긴 문화관련 글들을 모아 이번에 책으로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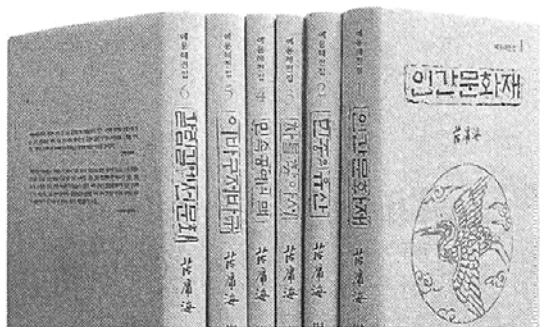
전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용해 전집> 가운데 제1권 <인간문화재>는

단청 어장 가곡 관소리 오광대 나전 칠기 백자도공 조각장 등 모두 62분야에 걸친 전통기능인들의 고승을 담고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꽃담과 장독대, 갓, 비녀 등 우리 생활속에 자리했던 전통공예품들은 제2권 <민중의 유산>에서 실었다. 예선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열정은 차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제3권 <차를 찾아서>에서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초의 선사와 연보 대비표를 함께 수록해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옛사람의 발자취를

간편히 볼 수 있게 했다. 제4권 <민속공예의 맥>은 전국을 답사하며 조사한 우리나라 민속공예의 실태를 담았으며 그동안 예선생이 잡지, 신문 등에 기고한 수필 단상들은 제5권 <이바구 저바구>와 제6권 <갈림길에 선 문화>로 정리해 놓았다. 이 전집에는 우리전통문화를 사랑하고 그 보존과 전승을 염원하는 예용해선생의 마음을 특유의 필치와 문율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은자 기자

## 인간문화재·민속공예 등 이해 길잡이 생전에 남긴 문화관련 글 6권에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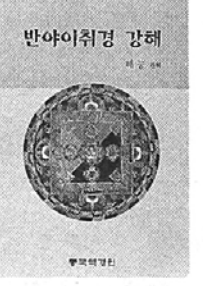
### 반아이취경 강해

해능 편역 밀교 기본경전 성립과정과 내용

**화제의 책**

반아이취경의 지혜를 밀교적으로 전개시킨 <반아이취경>을 팔공산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율학을 연찬하고 있는 해능스님이 편역했다. 밀교의 기본경전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아이취경>이 어떤 경전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는지, 또한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경은 중국적인 깨달음을 '대

락(大樂)'이라는 성적인 쾌락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경지를 인간의 심정에 가탁한 일종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종교체험의 극치를 말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인간생명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볼 때 대략은 정정한 보살의 경지라고 이경은 대답하게 설하고 있다. 이 책은 대략 사상을 17청정구(淸淨句)로 모으고, 그것을 현실을 긍정하는 반아실상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공은 대략의 세계라는 것을 역설한다.



## 대만 '禪만화' 국내 인기몰이

선설·육조단경 등 19개 언어로 번역

'이심전심 불립문자(以心傳心 不立文字)'를 만화로 깨치자. 심오한 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선불교(禪佛敎)의 가르침을 익살스럽게 그려낸 선(禪)만화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세상사는 지혜가 담긴 대만의 선만화가 체지충씨의 '체지

충음속에 선이란 무엇인가를 자못 진지하게 가르쳐 준다. '체지충고전만화시리즈중에서도 <육조단경>과 <선설>은 2만부 이상이 팔려나가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고 말하는 호산문화 고에란데리는 '체지충씨가 현재 석가모니의 일대기도 만화로 제작하고 있어 완성되는 대로 출판을 약속하여 번역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체지충고전만화시리즈는 이미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서 19개 언어로 출판돼 전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경사경 및 공부 上中下)<법성계한자공부>(좋은인연)등은 사경과 함께 불교용어와 경구에 대한 간략한 해설도 곁들여 처음 사경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다. 또 <지장심론경서품 지장보살예찬문>(사경명역원)은 한문과 한글을 각각 실었으며, <지장보살사발>(도방)은 지장보살을 밀교에 따라 그리도록 해놓았다. 이밖에 <불교천자문>(우리출판사)은 불교경전에 나오는 불교용어 풀이 및 경전의 중요구절 해석을 통해 한문공부와 불교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경서다. <은>

##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쉬습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 1 서용 르스님 (고불종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환의 소리
- 2 서암 르스님 (전 조계종 중장)**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르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명한 삶을 조명
- 3 일타 르스님 (조계종 중장)**  
탈린트 고두심 불자가 풍도사를 배경으로 르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 4 석주 르스님 (힐보사 조실)**  
동화사가 정채봉 불자가 르스님의 구도정신을 담담하게 감동하는 영상
- 5 일산 르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르스님의 삶을 위해
- 6 성수 르스님 (법수선원 조실)**  
송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르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의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 7 고승 르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탈린트 엄영란 불자에게 설교
- 8 비룡 르스님 (일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 9 원담 르스님 (덕숭종림 방장)**  
판화가 황남재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르스님의 산중권지를 전함
- 10 일타 르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회상)**  
현대의 가슴에 속속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언화장세계 일근대 대표가 전함

\* 위 차례는 방송순서입니다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 해성스님 화갑기념 불교문집 '이 마음에 광명을' 펴내

전 중앙승가대 학장을 지낸 해성스님(호국지장사 회주)이 화갑 기념 불교문집 <이 마음에 광명을>을 발간했다. 이 문집은 57년 청담스님에게서 득도(得度)한 이후 75년 청담학원을 설립하고, 이후 해명복지원을

스님의 저술을 한데 모았다. 제3권에서는 80년 10.27법난 일기를, 제4권에서는 언론매체에 투영된 스님의 모습을 각각 실었다. 마지막으로 제5권에서는 설산스님, 도현스님, 심재열법사, 이근우선생 등이 해성스님과 인연이아기를 실었다. 해성스님의 화갑기념법회는 1일 10시 도선사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 출판소식

**중국불서 수입 판매**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이 중국불교서적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중국불학인명사전>(중화서국 刊), <현장대사소전>(해봉 刊), <중국선종종사>(가소고적 刊)를 비롯 불교사전, 경전, 불교사, 선관련서 등 64권이 현재 전시 판매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불교서적을 수입, 판매할 계획이다. (02)737-0695

**'만해세일' 여름호 나와**  
계간 만해사상 실천운동지 <만해세일> 여름호(통권 5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특집 '국토의 숨결을 찾아서'를 비롯, 제1회 만해시인회고 특집 시단으로 오세영, 이가림, 오택만, 나태주 시인 등 28인의 시와 에세이를 소개했다.

**'시공총서' 50권 돌파**  
시공사(대표 전재국)가 펴내는 '시공디스크버리총서'가 50권을 돌파했다. 프랑스 길리마르 출판사의 '데쿠베르총서'를 옮긴 이 시리즈물은 인류가 일구어 놓은 문화, 예술, 종교, 철학, 과학 등 정신산물을 포켓북 크기로 엮은 백과사전식 교양서. 이번에 출간된 책은 <양코르-장엄한 성벽도시> (기호의 언어-정교한 상징의 세계) <부두교-애곡된 아프리카의 정신> 등 41~50권에 해당하는 10권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립
2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멸의 지혜	유 필 환	한 언
3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해 원	가람기획
4	불교입문	조계종포럼	조계종출판사
5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6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윤 정 광	지식산업사
7	알자로 가는길	정 찬 주	좋은 날
8	두번째 출가	현 진 새	날
9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등 지
10	명상길라잡이	박 석	도 숲

구입문의:(02)737-0695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